

**실 틈 없이 바빴던 10월**

양곤, 그 31일 이야기

JUN, KONI, J, YOUNG

**2015  
OCTOBER**

# 10월 아피들 일정

일	화	수	목	금	토	일
			1 쉐비파 반별수업	2 양곤Y 널서리. 미얀마 수업	3 미얀마어 수업	4 후식
5 마오플라바 (나뭇잎 그리기)	6 게스트 하우스	7 홀랑파야 널서리 (나뭇잎 그리기) +MF	8 쉐비파 (재팬 파고다방문)	9 양곤Y 널서리. Logos hope호 방문	10 미얀마어 수업. 아피클럽 (첫 시작)	11 산드라 면담. 파냥과 저녁 식사
12 마오플라바 (강아지 접기. 방과후 체육)	13 게스트 하우스	14 홀랑파야 널서리 (강아지접기 .체육)+MF	15 빨래 MF	16 양곤Y 널서리. 미얀마어 수업	17 YMCA 행사 참여 (Interfaith)	18 아피클럽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19 마오플라바 (체육....). 뽀누와 홀레단	20 게스트 하우스	21 암센터. 호스피스 방문	22 빨래 MF. (뽀누 할아버지집 방문)	23 양곤Y 널서리. 미얀마어 수업. 뽀누와 오페라 공연 참석	24 미얀마어 수업. 아피클럽 (한국어학당. 쉐다곤 방문)	25 뽀누 (박기쁨) 만남 (점심 식사. 홀레단 탐방)
26 마오플라바 (신문지로 모자 만들기)	27 게스트 하우스	28 홀랑파야 MF. 아피클럽 (보타터용. 데텐자 축제)	29 빨래 MF. 중간평가 준비	30 양곤Y 널서리. 미얀마어 수업. 중간평가 준비 (산드라 점검)	31 결혼식 참석. 아피클럽 요리 준비	

# 목차

## 1. 우리들의 일상

- 마오골라바
- 양곤 Y Nursery
- YMCA
- 아피클럽
- 흘랑따야
- 특별한 일상
- 빨레

## 2. 우리들의 소개

- 나의 아피를 소개합니다
-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 3. 개인 에세이



# 1

우리들의 일상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 절망의 그 날



저번 주, 방과후에 잠시 해봤던 체육활동이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번 주엔 정규수업 때 마오꼴라바에서 체육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워낙 자유분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태권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태권도를 시작하고, 차례로 줄넘기를 하는데..

2015년 10월 19일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처음엔 한 명씩 잘 하는가 싶더니



개미떼처럼  
아이들이 구르고 뛰기 시작했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돌아본 곳에선  
산도 없는 마오꼴라바에서  
뽀누와 새야마들이 먼 산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놀았다.  
다음 체육수업이 두렵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마오꼴라바 친구들 - 도렌표, 소엘리, 아디노 사진에 나오지 않은 헤에투. 서로에게 낯설었던 처음

- 01 마오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내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뭐하고 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마을을 만날 수 있냐고 되물었다. 널서리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더 깊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말뿐이었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곳에 다들 있었다. 내 옆에 있는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다.

2015년 10월 26일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이렇게 힘든 하루가 될 줄 몰랐던 날.  
 또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될 줄 몰랐던 날.  
 함께 일하고 때론 숨어서 놀며 우리는  
**양곤 YMCA**의 일원이 되어갔다.

01 마오골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민족과 종교의 화합을 이루고자 시작된 Interfaith Dialog Group. 양곤 YMCA의 판냥 총장님이 기독교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6개 주의 주지사님들과 약 300명의 각 지역의 지도자, 종교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셨다.



"오늘 이거 참관하고 일 좀 하면 되겠지?"  
평화롭던 시간.



방송국 기사님들이 무지 많이 오셨다. 우리 사진을 찍어가셨지만 너무 인식한 탓일까 다음날 신문엔 우리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

2015년 10월 17일

# 우리들의 일상

JKJY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먹었다.

2015년 10월 17일

# 우리들의 일상

JKJY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2015년 10월 17일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환영인사부터 음식이 끓고 있는 슌 옮기기. 테이블과 의자 옮기기. 서빙. 설거지. 음향기기 설치까지 YMCA 1층에서 4층을 오르내리며 정신 없이 일한 하루였다. 힘들었다. 동시에 행복했다. 잠시나마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힘들고 함께 쉬는 것이 좋았다. 그들 역시 조금은 마음을 연 것일까.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남자스태프들이 밤에만 몰래 올라간다는 옥상에 우리를 데려가 주었다. 그날 바라본 양곤의 야경은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다웠다.

2015년 10월 17일

01 마오끌라바

02 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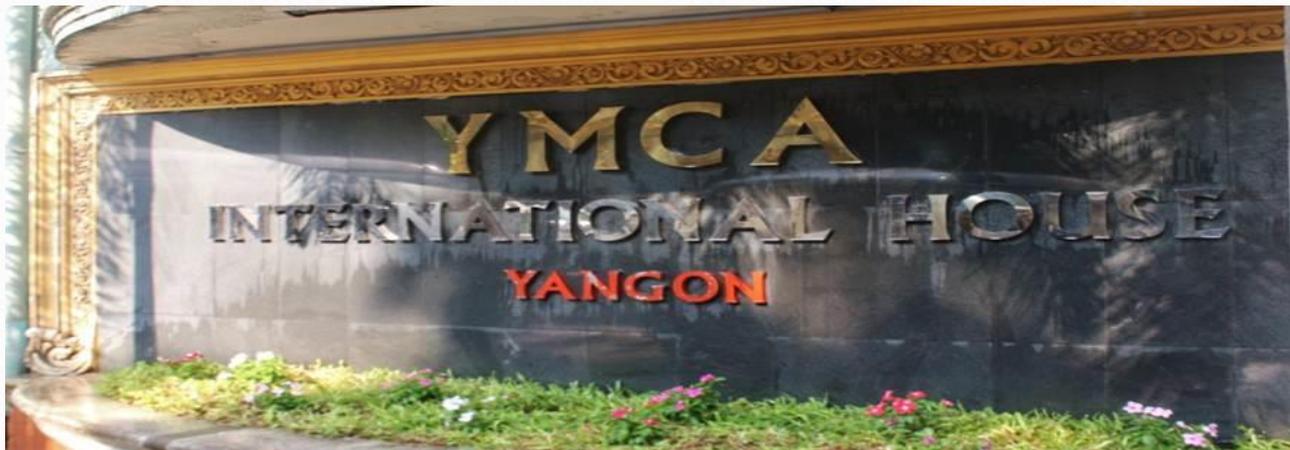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이곳 YANGON YMCA는 가족 경영, 가족 NGO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태프들이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라주(큰 아들)



우산니(아빠)



베이비(딸)



케피(막내)

먼저, 직계 가족이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우산니 가족이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우산니는 3층에서 물품 담당을, 라주는 차 수리 및 환경 관리, 베이비는 하우스 키핑을 하고 있으며, 케피는 리셉션을 담당한다.

01 마오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우바부(아빠)



추세이(엄마)



뚜자왜이(딸)

두 번째 가족, 우리와 가장 많이 보는 스태프 중 한명인 우바부. 항상 우리에게 밥을 갖다 주시고 인사해주시는 우바부가 가족이 YMCA에서 일한다는 것을 듣고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이 추세이가 와이프였다는 것이었다. 두 분다 아띠들이 매우 많이 만나는데 전혀 매치를 못했다. 게다가 양곤 Y 닐서리의 선생님 중 한명인 뚜자왜이가 그들의 딸, 예쁘고 엄마를 닮아 얼굴이 매우 작다. 수줍음이 많아서 단독 사진이 없는데 슬프다.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디보(아빠)**



**뚜왜세이(엄마)**



**존보이(아들, 4살)**

세 번째 가족. 여기는 알고 나서 경약했던 가족이다. 실제로 보면 더 어려 보이지만 디보는 일단 나랑 동갑인 27살이다. 하지만! 뚜왜세이는 40살. 더 놀라운 건 그들에게 첫째 아들 디보안이 있다. 그 친구는 7살. 그러므로 디보는 19살에 결혼한 것이다. 믿을 수 없었던 나는 리셉션 앞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다. 나와 동갑이지만 가장인 디보는 볼 때마다 멋있고 자랑스럽다. 그들의 흥미진진한 YMCA 러브스토리는 다음에..

# 우리들의 일상

01 마오골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근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로즈마리(딸)



원니(엄마)



묘묘쫘(사촌)



뚜투(사촌)



세 번째 가족, 여기는 사촌끼리의 관계이다. 원니는 딸인 로즈마리가 낄서리 선생님이지만 뚜왜세이, 뚜투, 묘묘쫘와 다 사촌관계이다. 그리고 모두 하우스 키퍼 및 리셉션으로 YMCA에서 일을 하고 있다.

JKJY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본적 없음(아빠)



메리(엄마)



묘 흘라잉 웨인  
(아들)

마지막 가족. 초반에 이름을 모를 때, 내가 흥아줌마(흥이 넘치셔서)라고 불렀던 메리에게 아들이 있었다. 묘 흘라잉 웨인. 처음에는 안보였던 그는 10월에 처음으로 YMCA에서 일하게 된 19살 친구이다. 이름이 어려워 미얀마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이름이 똑같다고 말해준 뒤로 축구선수라고 부르고 있다. 항상 활기찬 기운과 얼굴로 우릴 반겨주는 대표적인 흥 가족이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홀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10월의 매주 수요일.  
홀랑따야로 갈 때면, DAY OFF인 원니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신다.  
그래서 날서리가 끝나면 우리는 도시락을 들고 항상 원니의 집으로 향한다.

2015년 10월 매주 수요일

- 01 마오편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때는 10월의 수요일 어느 날.  
이다영 단원은 **점심을 다 먹은 후**  
원니가 주신 옥수수를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네 개**를 털었다.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포만감을 느끼며 쉬고 있을 때,  
학교에서 막 하교한 원니와 조셉의 아들,  
크리스토퍼와 드디어 만났다.

점점 원니의 집이 우리 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민폐는 되지 말아야지.

2015년 10월 매주 수요일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홀랑파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2015년 10월 28일

데텐짜 휴일이었다. 미얀마의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날에도 우리는 홀랑파야로 향했다.  
다음 주에 있을 중간평가 준비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도 가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쉬는 휴일이었으니까.

하지만, 홀랑파야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중간평가 때 보여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서 준비를 해놓으라는 샐드라 감사님의 말씀에 반발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의 코디네이터 우웬툯은,  
당연히 쉬는 줄 알았던 휴일에 우리와 함께 홀랑파야에 가게 되었다.

그것도 그 전날에 통보를 받고.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 정말 죄송했다.

파고다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는  
아버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휴일에도 우웬툽이 일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

누군가의 종교 휴일을 빼앗아 갔을 수도,  
누군가의 퇴근을 늦췄을 수도 있다.

매주 가는 사이트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못 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져서, 잊고 있던 것은 아닐까?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다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10월 28일, 우리들의 깨달음.

- 01 마오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 평화에서

## 평화를 찾다

평화로운 마을 빨레에서. 더 이상 평화로울 수 없을 듯한 그곳에서 '한 번 끝까지 놀아보고 게을러져 보자. 평화의 끝을 보자' 라는 모티브로 그날 하루 놀아봤습니다.

- 01 마오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이다영 단원이 이견희 단원의 무릎을 부수려고 하고 있다.

- 01 마오골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시소는 특정 방향으로 기울었다...

- 01 마오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피클럽
- 07 특별한 일상



야심차게 추진했던 빨레에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 우리의 생각처럼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빠르게 와 닿지 않았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에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봤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었다.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서서히 서로의 신뢰가 만들어졌을 때 집에 직접 초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이 다음 방문부터 '아피 살롱'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차를 대접해드리고 매니큐어도 칠해드렸다. 뒤에서 바라만보던 우리가 조금씩 느린 걸음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빨레 가는 길...

항상 가는 길이지만,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

## 고민의 시작...

그 동안 빨래서 가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서서 인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간보고 있는 중..



마을사람들과 함께 티타임 어때?



우피에 아저씨께서 티의 정확한 배분과 물의 양을 조절해 주셨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밍글라바

러폐이에 따우매! 차 드세요!

제주땡바레~

# 우리들의 일상

JKJY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티를 나누어드리며 인사를 했다.

그 뒤..

우리는 아주머니들의 수다에 주제가 되었다.

코리아 아이들의 맛있는 티!!!!

우리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건네주는 말들이  
따뜻하고 행복했다.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쉬는 시간 !

뽕뽕,

우띠에 아저씨,

메리짐언니,

디자인언니를 위한 팔찌를 만들기로 했다.

메리짐 언니는 팔이 얇아서 조그맣게 만들었고,  
뽕뽕은 다음에 끈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 달라고 했  
다.., (나중에 발찌로 사용했다는... ㅎㅎ)

다음에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네일 아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금요일 아침. 오늘은 준비한 체육수업을 하기로 한날이다.  
체육수업을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 01 마오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오늘은 풍선을 이용한 체육수업으로  
코끼리코 5바퀴 돌고 물병 돌고 오기.  
다리에 풍선 끼고 돌고 오기를 진행하였다.  
여느 때와 다를없이 평화롭기만 하던 그 날.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이렇게 예쁘고 천사같던 로즈마리가  
갑자기 널서리가 끝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미얀마 수업시간이었지만  
괜찮다고 웃으면서 수업하자는 에띠 선생님과  
다른 써야마들의 사우팅이 오가는 가운데  
나와 이다영 단원은  
그 때의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었다.

2015년 10월 23일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니 그것은 다음 주가 데덴짜 축제 휴일이었지만 휴일이어도 나와야 된다는 YMCA의 방침에 따라 휴일이 없어서 모든 선생님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곧 있을 총선거 관련하여 YMCA 스태프들도 YMCA가 투표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것을 위해 휴일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때 로즈마리는 그것을 듣고 억울한 나머지 대성통곡 하였고 나머지 써야마들도 그 상황에 화를 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선생님끼리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안도하였다.

그 후,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눈 써야마들과 더 친해진 느낌이 든다.



1주일 후, 양곤 Y Nursery에서 Peace!

## 10월 30일 금요일

01 마오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넬서리 선생님들은 종종 우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 받기만 하기 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나는,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간식을 준비하고 싶었다. 다른 팀원들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가서 사모사와 pomelo를 사왔다. 모두 내가 준비한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때.....



에띠 선생님 : J.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J : 사모사는 하나에 150원, pomelo는 1200원이요.

에띠 선생님 : !!!!!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사모사는 100원, pomelo는 700원이야.

J : 저는 이제까지 맨날 그 가격에 샀는데요.....(영영)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피클럽

07 특별한 일상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 우리는 생김 것도 다르고,  
미안마어도 못하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부터 직접적으로  
'외국인이라 사람들이 너를 속인거야'라는 말을  
듣게 되니.....

순간, 나에게 물건을 팔던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물건을 조금 비싸게 사긴 했지만,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사랑과 예쁨, 그리고 관심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

01 마오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어쩔 수 없지 뭐.  
미얀마 물가도 잘 모르고,  
미얀마어도 잘 못하는 주제에.

다른 현지인들과 같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웃기는 걸 수도 있겠다.'



아마, 돌아갈 때 까지, 물 사도 현지인보다는 조금 비싸게 사게 될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받은 엄청난 호의와 애정에 비하면, 얼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아띠클럽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아띠클럽은 미얀마에 온 첫 번째  
기수인 라운아띠 12기부터 시작된  
청년 모임이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친구를 만들고 싶은'  
미얀마 청년들과 우리 아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양곤 아띠들의 생활공간인 '도서관'에서 몇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쉐다곤 파고다, 인민 공원, 보터터웅 파고다 등 양곤의 여러 명소들로 소풍을 가기도 한다.

01 마오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현재, 우리 14기가 진행하는 아띠클럽의 고정 멤버는 4명(스마일.최고.보미.추이)정도이다. 고정 멤버 이외에도 매번 다른 미얀마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벌써 참여한지 1년이 넘는 아띠클럽 원년 멤버 4인방은, 우리 14기 아띠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아띠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아띠클럽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아띠클럽의 친구인 스마일과  
최고오빠와 함께  
한국어 학당을 찾아갔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

도착한 그곳엔 내 또래와 그  
보다 많은 오빠들이 있었다.  
전부 남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시험종이를 내밀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내용은 이랬다.

숫자를 읽어보시오. 오른손을 들어보시오  
그리고 전부 공장에서 쓰는 내가 이름 모를 도구들.

근무 중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도와줍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송합니다. 불량품이 안나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능숙하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생년월일은, 제  
키는, 가족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술을  
배워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상했다. 불편했다.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모두의 소개가 끝난 후 나는 내 소개를 했다. 내 이름, 내 나이, 내가 여기에 머물며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도 당신들처럼 미얀마어를 배우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다고.

그런데, 민준 오빠가 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냐고 물었다.

그들의 소개를 들었으니, 이제 나는 나의 소개를 하는 거였다. 내 생각엔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당연했는데....

한국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온 스마일은 한국에 가서 또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많이 아파 아직도 약을 먹는다고 한다. 최고는 고용시험에 통과해 올해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 한국에 간다면 행복한 표정으로 합격통지가 쓰여있는 종이를 보여주던 최고의 얼굴이 생각난다. 돈 벌어서 제주도에 가면 푸른 바다를 볼 거라 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세상에 얼마나 예쁜 단어들이 많은데...  
왜 내가 살면서 한번도 보지 못했던 단  
어들과 말들을 여기서 함께 외치고 있는  
지..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인가 싶은 생각에  
너무 슬퍼졌다.

무엇에 불편한 건지 무엇이 마음 한쪽에  
걸리는 건지 몰랐다.  
생각들이 엉켜버렸다.

복잡한 감정들은 접어두고, 이후 우리는 피플스  
파크에 가서 아띠클럽 친구들 각자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을 했다.  
무슨 색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즐겨 들  
는지, 서로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 병원 방문

01 마오플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2015년 10월 21일

산드라 간호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흘랑따야 대신, 병원에 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미얀마의 공립 병원은 원래 외국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고 한다. 이 곳에서 양곤 YMCA에서 병원에 기부를 하고 증서를 받는 것을 보았다.

두 번째로는 암 말기 환자들이 모여 있는 호스피스에 갔다. 말기 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치료보다는 요양을 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YMCA에서 준비해온 과자를 나눠드리며 인사를 드렸다.

## 고민거리

산드라 간사님은 우리의 병원 방문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하지만 가족의 투병 과정을 지켜봤던 경험이 있는 몇몇 팀원들은, 이 활동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이 투병했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또 보여 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자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했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과자를 전해주고 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분들을 존중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 분들에게 필요하긴 한 활동일까.



산드라 간사님은 때때로 라온아피를 '양곤 Y의 홍보대사'로 생각해서, 보여 지기 위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의 경우에는, 우리 팀원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활동이었고, 몇몇 팀원들은 '다시는 가기 싫다.'고 표현 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

다음에 또 산드라 간사님께서 병원에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걸까? 이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 활동이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피클럽

07 특별한 일상

## 데덴자 휴일

10월 28일 수요일은, 미얀마에서 매우 큰 휴일이었다.

아피클럽 원년 멤버 4인방은 그 날이 불교 관련 휴일인 만큼, 함께 파고다에 갔다가 페스티벌을 구경 할 것을 제안하였다.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피클럽
- 07 특별한 일상

YMCA에서 가까운 보터터웅 파고다에 가서, 아름답게 놓여진 수많은 등불들을 구경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미얀마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한 발자국 움직이기조차 힘든 파고다를 보았다.

- 01 마오플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데덴짜 휴일에는 양곤 Y에서 멀지 않은 곳에 페스티벌 거리가 형성되곤 한다. 특히, 그 기간에만 놀이기구가 설치되는데, 재현이 '공포의 관람차'라고 부르는 엄청난 놀이기구가 있다.

사람이 직접 올라타서 수동으로 돌리는 관람차인데, 매우 빠른 속도로 돌려대는데 다가 한눈에 보기에 너무 낡고 약해서 지금 당장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전부부터 그 관람차를 타고 싶었던 민준과 다영은 함께 관람차를 타자고 제안했고, 4명씩 나누어져서 관람차를 타게 되었다. 최고와 스마일은 절대 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텼지만, 그들보다 강하게 '꼭 타야 한다'고 떠밀었던 민준을 이기지 못하고 관람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역지로 관람차에 올라탄 최고와 스마일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계속해서 짜웃대(무서워)를 연발했다는 소문.

특히, 최고는 스마일의 품에 안겨, 그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함께 관람차에 탔던 재현과 민준에 의하면, 최고는 눈물까지 고인 채로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고 하는데, 최고는 아직까지 자기는 절대 울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J : 최고. 지난주에 관람차 위에서 우는 거 내가 다 봤어

최고 : 아닙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JUN : 아니야. 나도 봤어. 최고 울었어요.

최고 : (강한 부정) 안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J : 그래 알았어. 그렇다고 칠게.

**\*최고가 한국 공장과 계약을 해서, 곧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간다고 해요!**

**라온아띠 12기 때부터 아띠클럽에 참가했던 최고를 위해,  
양곤을 거쳐 간 아띠들 모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 Y 스텝의 결혼식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결혼하는 신랑은 마우빈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는  
샤 칸 메이로 마우빈에 갔을 때 본 적이 있었다.

2015년 10월 31일

01 마오골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띠클럽

07 특별한 일상



오늘도 이다영 단원은  
점심을 4그릇을 비웠다.

따냥과 그의 부인께서도 참석하셔서 함께 결혼식을 축하해 주셨다. 그리고 케익도 함께 잘랐다.

미얀마 전통혼례가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다른 나라의 결혼식을 처음 보고 여기에 진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았다.

라온아띠를

이야기하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우리는 라온아띠 1기 스리랑카팀  
흰꽃의 의미를 담은 뽀뿌, 박기쁨  
언니를 만났다. 현지인 같은 까만  
얼굴에 알록달록한 립지를 입고  
능숙하게 미얀마어를 구사했다.  
언니는 지구촌 나눔운동 NGO단체  
에서 미얀마로 1년간 파견되었다.  
2월에 우리와 함께 귀국을 앞두고  
있다.

01 마오꼴라바

02 YMCA

03 흘랑따야

04 빨레 MF

05 양곤 Y  
Nursery

06 아피클럽

07 특별한 일상



## 라온아피 첫 기수 어땠나요?

스리랑카에 도착하자 팀원들끼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형식에 맞추어 무엇을 할 것 인가를 고민하고 틀을 짰다. 그때는 무엇을 하든, 왜 이런 형식이 필요한가 의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올 다음 기수들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니 그것들이 전부 필요했다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 들었다.

\* '라온아피답다' = '다양하다'

귀국단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너 라온아피같다. 너 라온아피답다.' 라는 식의 말들을 했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서로 다르고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라온아피 다운 것' 아닐까

그리고 다시 만난 뽀뿌 언니와 훌레단의 한 카페에서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 01 마오꼴라바
- 02 YMCA
- 03 흘랑따야
- 04 빨레 MF
- 05 양곤 Y Nursery
- 06 아띠클럽
- 07 특별한 일상

라온아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팀원들과 함께 모여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이였다. 서로 뭉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돌아 보면 아쉬웠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도 귀국을 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나만 없으면 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 였다.

5개월간 함께 서로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뭉쳐 사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라온아띠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생전 본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과 5개월을 살려니. 벌써부터 막막해졌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 직장에서도 만나게 될 수 있다. 라온아띠를 통해 보아 온 사람들은 나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우리들의 소개

# 나의 아미를 소개합니다

나와 닮은 디자인언니

양곤 YMCA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일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언니는

나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언니를 보았을 때,

무척 친근했다. :)



## 우리들의 소개

JKJY



언니는 남동생 한 명과 언니 두 명이 있다.

첫째 언니는 싱가포르에서 살며 일을 하고 내년엔 미얀마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제 19살인 남동생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세 시간이 넘게 걸리는 언니의 집은 엄마와 아빠 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 언니는 양곤 Y에서 지내며 한 달에 한번씩 집에 들린다. 가족들과 떨어져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하다가 멀리 있는 딸 때문에 엄마가 매일 전화하고 걱정하는 게 신경 쓰인다고며 멋쩍게 웃었다..

언니는 처음으로 나에게 라온아피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었다.

누군가 물어볼까봐 걱정했던 질문들...

한국에서는 내가 미얀마에 왜 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 질문을 언니가 했다.

미얀마에 왜 왔니?

왜 5개월 동안이나 여기에 머무는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마치 준비된 것 처럼.

언니 하고 친구되려고 왔지. 친구가 되려면

5개월로는 부족하잖아.

그것도 서툰 영어로 더듬어가며 겨우겨우 대답했다.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몰라 가만히 있자,

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가 좋았다.



너희 둘이 진짜 닮았어.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Young, 너는 내 오래된 친구 처럼 느껴져!



한번도 한국인과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었는데..  
신기해!

우리들의 소개

# 현장 르포

JKJY

고발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촌철살인의 엘리트 기자  
JUN



그가 14기 양곤팀의 집을  
고발한다.

# 거실 및 식당 용도의 도서관



일상적인 도서관 전경



찬장으로 변신한 책꽂이



한꺼번에 하는 게 최고인 설거지  
(Feat. 식당 아주머니)



언제나 풍부한 양식들과 한국에서 막 도착한 선물들♥



LUNA, 주은지  
감사님 ♥ ♥



이X영 단원이 휩쓸고 남긴 수박껍질 한 척과 차 잎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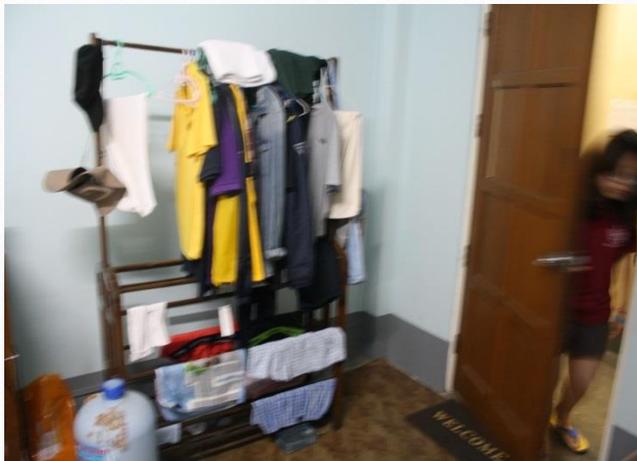


# 평범한 남자 방

전체샷



아득하고 따뜻해 보이는 두 침대와 깔끔한 방안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의 등장



이건희 단원의  
보물1호



엔티크한 가구와 풍부한 먹거리들(김치, 김 등)



모델로 만들어주는 요술 거울

반면,  
심호흡 하세요



# 문제의 여자 방



남은 침대는 짐칸으로 변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쓰레기들



몰래 숨겨놓은 짜왕(까먹은 듯)



똑같이 더러운 냄새 날 듯한 쌍둥이 침대



황급히 정리한 책상

**이상 아주 깔끔해진  
깨끗한  
여자방이었습니다.**



**전체샷**

**COMPLETE**



다음 취재 때 봐요~

# 3 개인 에세이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마오편라바에 함께 갔던 코디네이터 솔리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다.

양곤 Y 게스트하우스 사정으로 인해서, 솔리는 우리와 마오편라바에 가는 대신,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리셉션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던 솔리에게 물었다.

'우리랑 마오편라바에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리셉션 데스크에서 근무 하는게 좋아?'

별 생각 없이 장난스럽게 던진 질문이었다. 솔리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마오편라바는.....갔다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해졌다.

그렇구나. 내가 힘든 만큼,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도 힘들 텐데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활동,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돕는 코디네이터들은 그것도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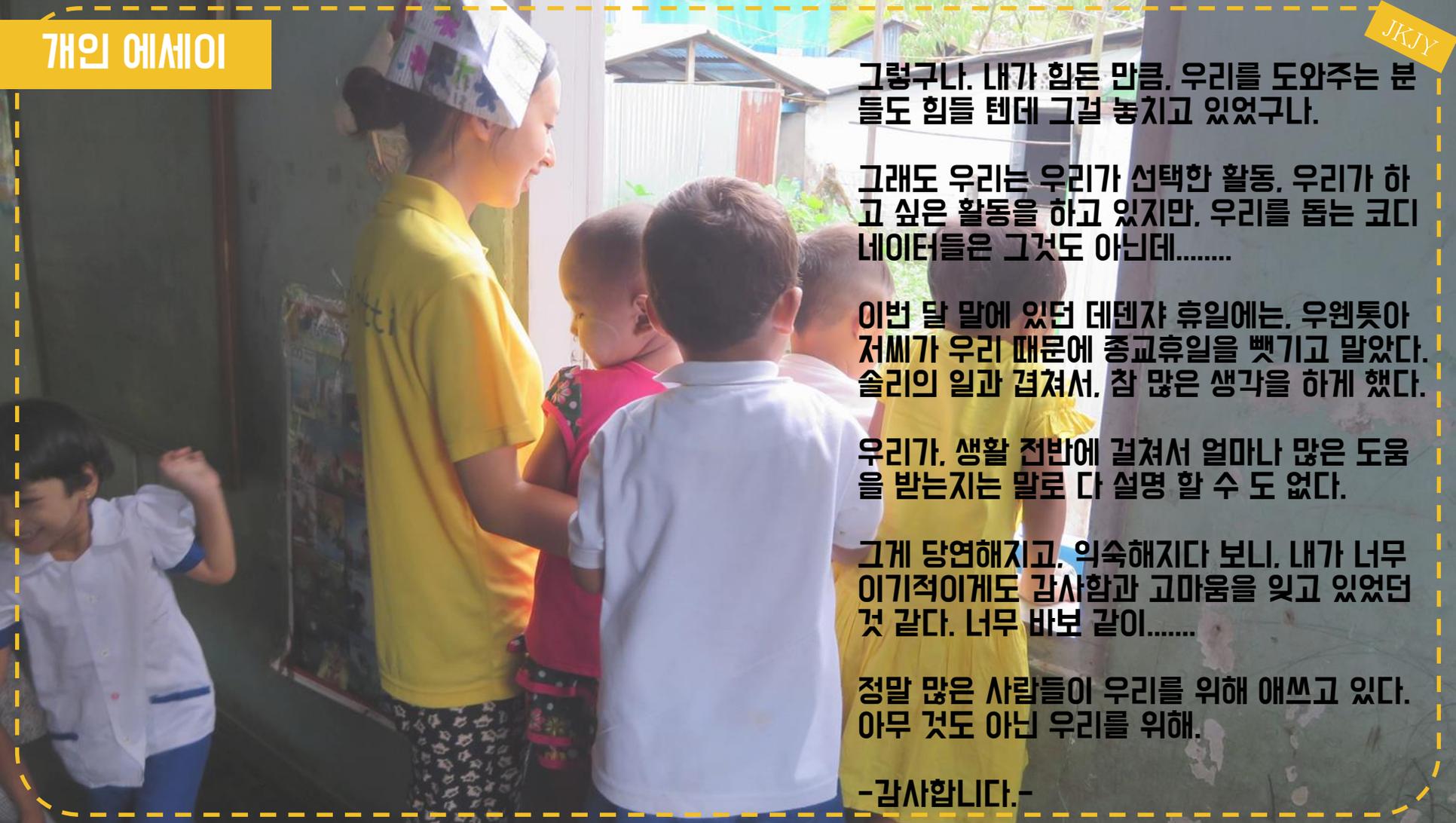
이번 달 말에 있던 데덴자 휴일에는, 우웬툽아 저씨가 우리 때문에 종교휴일을 뺏기고 말았다. 솔리의 일과 겹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는 말로 다 설명 할 수도 없다.

그게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도 감사함과 고마움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바보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9월은 매일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나뭇잎 하나까지  
하지만 10월이 되고 일정이 고정되며 생활이 단조로워지기 시작했다.  
같은 버스, 같은 곳, 같은 사람, 같은 음식 등...  
끝내 10월말에는 권태로움과 단조로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기가 싫  
어졌다.  
그러던 중, 무심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다 똑같다는 것이었다. 미얀마에서 내가 본 사람  
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밖에 나가서 놀거나, 집에서 쉬었다.  
이런 기본적인 세상의 순리를 나는 라온아피라는 허세로, 나만 느끼고  
싶은  
이기적 목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앞의 일상을 보지 않고 자극적으로 커다란 환상만 쫓고 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중간 평가 후, 다시 한번 나를 다잡고 싶다.  
더욱더, 일상에 치이고 힘들며 일상으로 침잠하고 싶다.

더 진이 빠지도록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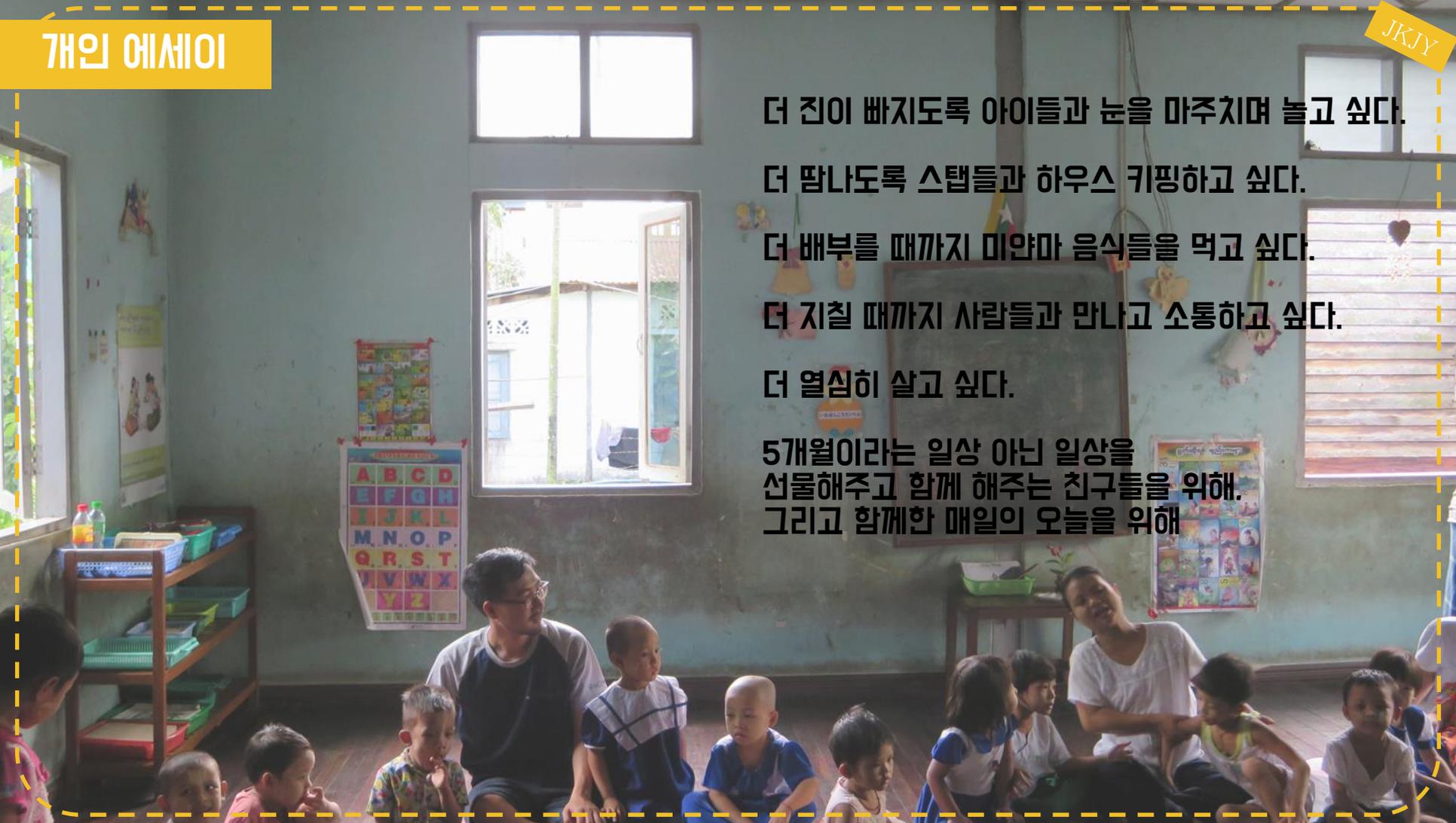
더 땀나도록 스텝들과 하우스 키퍼하고 싶다.

더 배부를 때까지 미얀마 음식들을 먹고 싶다.

더 지칠 때까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

더 열심히 살고 싶다.

5개월이라는 일상 아닌 일상을  
선물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한 매일의 오늘을 위해



## 개인의 에세이

JKJY

10월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했다.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분 좋은 날, 뿌듯한 날, 행복한 날들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이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지쳤다. 양곤이라는 도시에 지친 건지, 매일 타는 버스에 지친 건지, 사람에 지친 건지, 체력이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 팀원들과의 사이도 좋고 친구도 만들고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이곳에 그냥 여행 온 외국인이고 싶다. 이곳 양곤에 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또 다른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소진이라는 게 온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나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더 혼란스러운 것 같다.

오늘 낮에 외출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지금은 내가 한국에 갔다가 1년 뒤 다시 양곤에 돌아온 거라고. 거리가 친근하고 반갑게 느껴졌다. 여기엔 시장이 있고 저기엔 파고다가 있고, 나무는 저렇고 사람들은 저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으니까 웃음이 났다. 어쩌면 나는 이곳이 너무 내 집 같고 내 동네 같아서. 그래서 지켜워했는지도 모른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다시 한 번 이곳에서의 생활과 나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미얀마에 라온아띠 라는 이름으로 오면 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알았나 보다. 마을을 만나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미얀마 안에 팀원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불편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상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어떻게 상상처럼 될까 ... 하루하루 새로운 과제들이 주어지고, 일상에 치이고 몸이 아파지면 나아가 고자 하는 용기를 잃었다.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무언가를 해야 했으며, 갈수록 고민이 늘어가고, 사소하게는 씻고 싶는데 물이 안 나오거나 녹물이 나오는 화장실에 화가 나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 내가 평평 쓰던 물의 소중함을 다시 알았다. 내가 미얀마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한국이 그리워지다가 길을 지나가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나 주인 아주머니에게 '벨라웃레?' 라고 물으면 아주머니께서 '응아야' 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 말을 한번에 알아듣고 지갑 안에서 오백 짜트 을 건네는 자연스러운 과정 안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Y스텝들과 미얀마어로 대화하는 몇 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내가 여기에 머물러가는구나 생각한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어쩌면 라온아띠를 시작하기 전 부푼 상상 보다 지금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소하게 오고 가는 인사와 대화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 개인 에세이

###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법]

자주 웃는다.

행복한 상상을 한다.

작은 것에도 사랑에 빠진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

하루 끝에 나눔을 한다. 하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루에 최대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 [버스 안에서 문득 든 생각]

순간에 충실하고 싶다. 그것을 하지 못했음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그때 그 친구의 이름을 묻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는 하고 싶지 않다. 벅찬 만큼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순간 충실하며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싶다.



JKJY

11월에 만나요~!

